

나주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구축해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연계 등 에너지신산업 비전 제시 AI·부품국산화·인력 양성...“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나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주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여수 유타마리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전남 미래 에너지산업 혁신 및 글로벌 직류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워크숍’에 참석해 축사와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에너지밸리산업융합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공동 주관했

으며, 전남도와 지자체 관계자, 에너지기업, 전력기자재 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과 글로벌 직류산업 기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상구 권한대행은 특별강연에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의 완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망 패러다임 변화와 안정성 확보 방안, 직류 기반 송배전 기술, AI 기반 전력 운영체제 등을 설명했다.



최근 여수 유타마리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전남 미래 에너지산업 혁신 및 글로벌 직류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 권한대행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더욱 부각된 전기주권시대에 전남 전역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육성하고 분

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미래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자리다”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 산업화를 연결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차세대 전력망 산업의 핵심 요소로 에너지 AI, 전력산업 부품국산화, 전문 인력 양성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나주시가 그 중심에서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gwangnam.co.kr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12일간 23만여명이 찾은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폐막식 현장 모습. 사진제공=함평군청

‘23만명 방문’ 함평나비대축제, 체류형 관광 콘텐츠 주목

입장료 수입 8억원...농특산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12일간 23만여명이 찾은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단순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 참여 콘텐츠를 강화한 ‘참여형 생태 축제’로 기획됐다.

함평의 대표 자원인 나비를 중심으로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축제 기간 총 23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입장료 수입은 8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2억86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체험 부스와 편의시설 입점 업체 역시 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축제 기간에 맞춰 임시 개장한 ‘나빛

파크’는 실외 놀이시설과 실내 체험 공간을 결합한 복합형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놀이와 체험, 휴식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써 함평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함평나비대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는 매 회차 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화려한 연출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퍼레이드는 명실상부 축제의 대표 콘텐츠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 밖에도 전통놀이 체험, 농업·생태

체험,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균형있게 운영되며 세대 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초청 가수 공연과 버스킹, 경연 프로그램 등 문화 콘텐츠도 함께 펼쳐지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는 관람객 참여와 체험 요소를 강화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함평만의 고유한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20일 여수서 개최 현장 채용·직업정보·창업 상담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여수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일 흥국체육관에서 ‘2026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총 15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사장은 채용관과 취업준비관, 직업정보관, 창업관, 부대행사 5개 부스로 운영된다.

채용관에서는 여수 25개, 광양 5개 기업 등 총 30개 업체가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120개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해 170여명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준비관에서는 구직스트레스 검사와 AI 취업컨설팅,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

업정보관과 창업관에서는 AI 기반 직업 상담, 여성 유망직종과 산업단지 일자리 정보 안내, 창업 컨설팅 등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는 ‘과거를 만나 지금을 묻다’를 주제로 한 전시와 중·장년층 대상 AI 취업전략 특강,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가족친화인증기업 홍보관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11일까지 모집하며,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 채용을 넘어 취업 준비부터 직업 정보, 창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취업 지원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여성 구직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민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성,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간담회 병원동행서비스·케어안심주택 등 논의

장성군은 최근 가족행복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장성담당자와 성공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올해, 군은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병원동행서비스 △퇴원환자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스케어안심주택 △방문맞춤 운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동행서비스’는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지 어려운 65세 이상 거동 불편 주민에게 통원 치료와 동행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거나 공공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주민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방문 목욕과 식사를 지원한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회복이 필요하다면 ‘케어안심주택’에 머물 수 있다. 운동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증을 방문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통합돌봄사업 관계자들은 유기적인 협업 기반 강화와 지역 특성·수요를 반영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상, 지원 내용, 연계 절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안보현 장성군 가족행복과장은 “복지보건 분야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현범 기자 hb6699@gwangnam.co.kr

영암향교, 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난다 10월까지 가야금·판소리 등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이 지역 문화유산의 거점인 향교를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전통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10월 영암군에 따르면 국가유신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오는 10월까지 영암향교 일대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한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와 도비 등 총 3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한다. 특히 ‘산조의 분향’이라는 영암만의 독보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살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고즈넉한 향교 마

당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향교마당 음악회’를 비롯해,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가야금 및 판소리 실습 교육’이 운영된다. 아울러 전통 예절과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통 인문학 강좌’도 함께 열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적 가치를 더할 전망이다.

김철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과거 선비들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에서 우리가 띠인 가야금과 판소리를 배우는 경험은 지역 문화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서승용 기자 cut@gjdream.com

장흥 수산물 공동브랜드 ‘팔딱나지’ 런칭 ‘프리미엄 브랜드’ 도약 선포식

장흥군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팔딱나지’라는 이름표가 따로 붙는다.

장흥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나지의 브랜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장흥군이 지난 6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장흥 팔딱나지’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 현장에서 열린 브랜드 선포식은 청정 갯벌에서 자란 장흥 나지의 차별화된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다.

“장흥 팔딱나지는 청정 자연이 길러낸 지역의 핵심 자산”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표



수산물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장흥 팔딱나지’ 중심 통합 브랜드 체계를 갖추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병행해 전국 단위 인지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프리미엄 수산물 시장 공략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어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장흥=김효수 기자 human@gjdream.com

강진, 올해 첫 ‘선풍’ 품종 논콩 10ha 규모 식재

강진군은 최근 올해 첫 논콩 식재를 완료하고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이번 첫 식재는 착한농업조합법인(대표 마경무)이 콩 품종 ‘선풍’을 10ha 규모로 식재한 것으로, 강진군은 이번 식재를 시작으로 논을 활용한 공 재배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작부체계 다변화와 식량자급 생산 안정에 힘을 기울인다.

착한농업조합법인의 공 재배면적은 지난해 128ha에서 올해 135ha로 늘어 전년 대비 7ha 확대됐다.

군은 재배면적 증가가 현장 참여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육 단계별 기술지원과 현장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파종 이후 초기 활착과 생육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배수 관리, 잡초 방제, 병해충 예방 등 핵심 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농가 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고,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재배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